

세계시민을 양성합니다... 경희대의 '脫학제 실험'

국내 대학 첫 세계시민교육 시행
올해부터 전체신입생 대상 강의
글로벌 난제 아이디어에 연구비



이영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경희대 본관.

/경희대학교

“교육에서 학습으로.”
경희대학교의 교육 혁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한 교과를 개설해 지도교수와 한 학기 동안 연구하는 탈 학제·학문 교육을 하는 학생 독립연구에 이어 올해는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교육을 시행한다. 또 필수교과 강좌당 학생 수는 25명으로 줄여 ‘교육’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7일 경희대에 따르면,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번 학기부터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GCED)을 시행한다.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대학은 경희대가 처음이다.
교양 필수인 ‘세계와 시민’으로 개설된 강좌는 그동안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운영해 온 ‘시민 교육’ 교과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영준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은 “세계시민의 시대를 열어가길 주역들 길러내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유네스코에서도 경희대의 세계시민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긴밀히 협조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일

환으로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이 이번 학기부터 직접 강의에 나선다.
‘세계와 시민’ 과목에는 문제만 있고 정답은 없다. 학생들은 기후변화, 생태환경 문제, 빈곤, 불평등, 민주주의 위기 등 시대적 난제가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배운다. 과제 설정부터 해결방안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이영준 학장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시대적 난제 해결을 고민하는 교육현장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희대는 창학 초기부터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임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09년엔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고,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해왔다. 바이오헬스·미래과학 등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관산학 협력사업 추진이 대표적이다.
작년부터는 교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생태·환경 위기, 에너지·자원 고갈, 식량 부족 등의 해결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최대 7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전환 21’을 개설했고,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도 설립했다. 창업이나 봉사, 탐방, 연구 등 분야에서 스스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로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는 ‘꿈도전장학’도 만들었다.

지난해 1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과제를 찾고 지도교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독립연구’를 ‘독립심화학습’(전공선택 3학점)으로 개편해 모든 전공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 학제와 학문을 뛰어넘는 탈 학제·학문인 셈이다.
2016년 한 학생의 제안으로 도입된 독립연구는 학생들의 연구와 창업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일반대학원 융합의과학과에 진학한 이승은 씨는 2017년 학부과정에서 진행한 독립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썼고, 지난해 4월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표지를 장식했다. 강은석(컴퓨터공학과 08학번) 씨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을 돕는 스티디그룹 비즈니스

모델’ 과제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을 서비스하는 ‘한지(지)’를 창업했다.
학생들의 제안해 진행 중인 과제로는 ‘최근의 SNS에 나타난 어휘사용법 및 빈도 변화 연구’, ‘6.13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생성된 인터넷 공간 내의 정보 유통 과정분석’,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불면증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 등 학문 분야를 넘나든다.
독립연구를 수행한 김자현(언론정보학과 11학번) 씨는 “강의실, 시간표, 가르침과 배움의 경계, 시험, 경쟁이 없는 과목이었다”며 “바뀌 말하면 어디든 강의실이 있고, 언제든 공부할 수 있었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해 함께 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과밀 강의실’ 개선에도 나섰다. 2011년 교양교육을 위해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선 필수교과와 강좌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여 발표와 토론 위주로 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교수와 학생 간 친밀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영준 학장은 “교수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교수는 이제 전문가에서 코치로, 학생은 수용자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QS세계대학평가 국내 1위·세계 34위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호텔관광경영학이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2019 QS 세계대학평가 분야별 순위’에서 국내 1위, 세계 34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평가는 ▲학계 평가 ▲졸업생 평판도 ▲논문 당 인용 수 ▲H인덱스 등 4개 평가지표가 활용됐다. 학계 평가의 경우 전 세계 학자 약 8만3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졸업생 평판도는 전 세계 기업 인사 담당자 4만 2000여 명이 ‘어느 대학 졸업생이 우수한가’, ‘그 대학의 어떤 학과 졸업생을 채용하길 선호하느냐’고 물어 산출됐다.
세종대 관계자는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가 세계대학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까닭은 세종대만의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는 1968

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설치된 학과(구 관광개발과, 호텔경영과)로 호텔·관광·외식 경영자와 전문가 양성이 목표다.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학문과 실무적 측면에서 현실 문제를 중점 다루고, 국내 관광지 답사와 호텔, 여행사, 항공사 등 관광업체와의 현실실습도 활발하다.
올해 1학기부터는 ST(Smart Tourism Management Software)융합연계전공을 개설하고 맞춤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에 힘쓰고 있다. ST융합연계전공은 호텔관광산업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전공이다.
올해 6월에는 국내외 명장 셰프들을 초빙해 수업을 진행하는 ‘Sejong Culinary Institute of Asia(SCLA)’ 개소도 앞두고 있다. SCLA는 8일 완공식을 갖는 대양AI센터 지하 1층 약 1,785㎡의 공간에 최첨단 실습실을 마련했다. 커리큘럼은 10여개 이상의 양식, 일식, 중식 등 세종대만의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18년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이로써 2016~2018년까지 3년 연속 우수 대학에 선정된 유일한 여자대학이 됐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기존 사업기간에 인센티브 기간 1년이 추가돼 향후 3년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은 종합적인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숙명여대는 재학생과 지역청년 대상 윈스톱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취업이나 진로 1대 1 상담이나 현장실습, 직무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NCS 직무역량스쿨 등 집중 취업역량 강화교육도 시행한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숙명여대는 서울권 4년제 여대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에서 2018년 정보공시 기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숙명여대 옥경영 경력개발처장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통해 취업관련 우수기관으로서의 수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본사 50%, 매장직원 출신... 스펙보단 열정”

인터뷰 홍지대 ABC마트 인사팀 팀장

공공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스펙보단 열정’이란 말은 희망고문에 가깝다. 스펙이 있어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펙 타파’가 채용의 키워드인 기업도 있다. 바로 ABC마트 코리아다.
ABC마트는 전 세계 150여 개 브랜드의 신상품 및 인기 스티디셀러를 취급하는 대형 슈즈 멀티스토어다. 지난해 매출액은 5820억원, 전국 직영점은 247개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홍지대 ABC마트 인사팀 팀장은 “ABC마트에서 스펙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신발에 대한 열정”이라며 “신발을 좋아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접 때 정장 입고 오지 마세요”
ABC마트는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판매직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일정은 3월에 시작되며 ▲서류 ▲1차 면접 ▲최종 면접 ▲현장훈련(OJT) ▲매장 배정까지 약 한 달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홍지대 팀장에 따르면 ABC마트는 편안한 분위기의 면접을 추구한다. 지원자가 스스로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홍 팀장은 “서류 합격자들에게 매년 당부하는 것이 있다면 면접 때 정장을 입지 말라는 것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저희와 맞는 인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형식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펙 아닌 능력 위주의 인



재 채용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변화다.
홍 팀장은 “판매직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친화력, 화술, 상황 대처 능력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자기소개서 검토입니다. 저희는 지역장, 점장까지 함께 서류를 보고 지원자를 선별합니다. 원하는 인재가 면접장에 왔을 때 누구인지 100%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ABC마트의 고졸자와 대졸자 비중은 6:4 정도다. 판매직 출신 임원급 비율은 임원진 30% 이상, 팀부장급 40% 이상 수준이다. 스펙보다 능력과 경험을 높이는 ABC마트의 기업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지대 팀장은 “판매직으로 시작해 본사에 온 직원 비중은 50% 정도다. 저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서 “본사에 결원이 생기거나 새로운 팀이 구성되면 매장으로 가장 먼저 공지를 한다. 지원 자격은 입사 1년 이상 직원들에게 부여된다.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매장 실적 및 근태

가 우수한 직원에게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공채 합격자 전원 정규직 전환
ABC마트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수평적 조직 문화다. 이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지대 팀장은 “대표님, 상무님을 비롯한 본사 직원들까지 주말마다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본사와 매장간 벽이 없다. 또 본사 내부에서도 의견 교환이 활발이 이뤄진다”며 “ABC마트만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이렇듯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 및 승진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ABC마트의 직원 근속 연수는 긴 편입니다. 편안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ABC마트 직원 할인, 육아휴직 장려 등 잘 정착된 복지 문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홍 팀장에 따르면 본사 내 육아휴직 복지 비율은 80%에 이른다. 남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도 몇 해 전부터 일찌감치 장려되고 있는 분위기다.
홍지대 팀장은 “ABC마트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신발을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덕업일치’ 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